

# 과연 냉전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인가?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으로 보는 시각을 매우 싫어한다. 소위 냉전 시기 이른바 자유진영으로 불리던 국가들의 선봉장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제국주의였던 국가였고, 또 실제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영국은 버마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및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려고 했다. 프랑스 또한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알제리와 모로코 등에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외에 벨기에나 네덜란드 그리고 포르투갈 등도 식민지 지배정책을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앙골라를 1975년까지 식민지 지배했다. 영국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뺏긴 홍콩을 1997년까지 자신들의 식민지로 지배했고, 버마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미뤘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신들만의 베트남 전쟁을 치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이집트도 다시 식민지 지배를 하고자 했다. 자유진영에 있던 네덜란드 또한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다시 식민지 지배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떠한가? 프랑스는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 지배하고자 했고, 1954년에 디엔비엔푸 전투 이후 물러났다. 심지어 프랑스는 베트남에게 패배한 이후 알제리에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러다가 1962년 알제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 외에도 프랑스나 영국 등은 태평양에 있는 몇몇 섬들을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영토로 다스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구제국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간접지배를 이용한 제국주의 정책을 이용하는데, 놀랍게도 과거 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내정에 간섭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앙골라, 버마, 이집트, 알제리 등 일부는 군사적으로 일부는 내정간섭을 통해서 개입했다. 그리고 과거 식민지 국가들의 부역자들을 이용해서 자유라는 이름하에 친미정권을 세워놓는다.

이것이 바로 냉전이였다. 반면에 소련은 과거 식민지 해방운동을 하던 이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60년간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혁명을 통해 탄생한 사회주의 쿠바가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누구의 지원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미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베트남이 누구의 지원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답은 분명하다.

한국사회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전쟁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반식민지 해방적 흐름을 보면,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서구 제국주의와 구식민주의적 유산일 뿐이다. 그리고 애초에 이승만 정부에선 자유민주주의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해방 후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은 허구일 뿐이며, 점령국 미국이 친일파를 이용해 만들어낸 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냉전을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으로 단순도식화해서 보는 논리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